

전시구성

콩고강 –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주 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대여기관 ★MUSÉE DU QUAI BRANLY
là où dialoguent les cultures

전시문의 02) 2077-9271

관람시간

화·목·금요일 오전 9:00~오후 6:00
수·토요일 오전 9:00~오후 9:00
일요일·공휴일 오전 9:00~오후 7:00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설명

전시 기간 중
평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3시
(특별전시실 입구에서 시작)

※ 10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특별전시실
홈페이지 www.museum.go.kr - 행사마당 -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표 참조

2014년 1월 10일 본 전시를 기획한
프랑수와 네이(François Neyt)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번지)

| 10월은 문화의 달 |

콩고강 –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2013 10.22. TUE –
2014 01.19. SUN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Room,
National Museum of Korea

주 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대여기관 ★MUSÉE DU QUAI BRANLY
là où dialoguent les cultures

전시소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콩고강은 잠비아의 국경 초원에서 발원하여 적도를 따라 열대우림과 사바나를 지나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약 3000년 전 서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반투족은 물길을 따라 콩고강 주변의 숲과 초원으로 퍼져 나가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콩고강 유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콩고강 유역 반투족의 문화적 전통의 뿌리는 종교적 믿음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 강과 나무 등 자연 속에 정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죽은 선조들의 영혼을 신성시하며 항상 살아있는 후손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정령 신앙과 조상 숭배는 예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가면과 조각상은 하나의 인격체의 모습과 영적인 힘을 표현한 사물이자 동시에 반투족의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이번 전시는 열대우림과 대초원을 배경으로 형성된 콩고강 유역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가면, 조상 숭배, 여인상을 주제로 3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지닌 원시성과 생명력이라는 매력은 20세기 초 위대한 예술가들에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01 심장 모양 가면

일반적으로 심장 모양 가면은 콩고강 전역과 오구에강 서안에서 확인된다. 간결하고 극도로 단순화된 형식으로 표현되는 심장 모양 가면은 다양한 신들과 정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각종 의례 행위에 사용되었다. 의례 행위에는 음악, 춤, 주문 등이 섞여 있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행위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교육, 부족 공동체의 통합, 악령 퇴치, 질병 치료 및 정의 실현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둥근 뿔이 달린 가면

영양의 것으로 보이는 둥근 뿔로 둘러싸인 가면으로 숲의 정령을 표현한 것이다. 쿠엘레족은 사냥 결과가 좋지 않거나 전염병 등으로 마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에 맞서고 부족민을 결속시키기 위해 비에테 Beete라는 의례를 치뤘다. 이 가면은 바로 비에테에 사용되었다. 비에테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춤을 추었고, 관중들도 동참하여 부족 내 화합을 다졌다.

가봉 / 쿠엘레Kwele 족
20세기 초
나무 / 높이 45.0cm



가면

레가족은 부아미Bwami라는 자발적 결사를 조직해 정치, 사회,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조직 내에는 여러 단계의 회원이 존재하며 각 단계 간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각 단계의 회원은 승급을 통해 상위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승급 시 며칠 동안 진행되는 입회식을 치뤘다. 가면은 부아미의 최상위 단계 회원의 상징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 / 레가Lega 족
20세기 초
나무 / 높이 14.0cm



02 조상 숭배

조상 숭배는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은 조상의 신비로운 힘과 권위가 그들의 살아있는 자손인 자신들을 보살핀다고 믿었다. 많은 부족 공동체들이 중요한 선조의 유골과 두개골을 다양한 종류의 유골함에 보관하였고 유골함의 맨 위에 조각상을 두어 유골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선조상은 특정한 개인을 표현한 초상으로 여겨졌으나 그 특징은 흔히 정형화된 모습을 띤다.

은키시 은콘디 Nkisi Nkondi

은키시 은콘디는 ‘강한 힘을 지닌 조각상’을 뜻한다. 콩고족은 이 조각상이 대단한 힘을 지녔다고 믿고 있다. 이 조각상의 주술적 힘은 주술사가 못이나 날, 혹은 다른 철로 된 물체를 조각상에 꽂음으로써 발휘된다. 큰 두 눈은 착한 사람을 방어하고 정령과 조상을 명확히 보기 위한 것이다. 크기가 큰 조각상은 마을 전체의 안위를 위해 제작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Kongo 족
20세기 초 / 나무, 금속, 면직, 안료, 도기 / 높이 94.0cm



수호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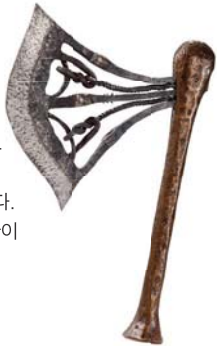
팡족은 에이마 비에리Eyima Bieri로 알려져 있는 유골함 조각상으로 유명하다. 이 조각상들은 19세기 말 유럽인들에게 알려졌고 그 시각적인 형태가 피카소와 같은 화가들에 영향을 끼쳤다. 이 조각상은 기념할 만한 조상들의 두개골과 뼈 조각을 담고 있는 원통형의 바구니 꼭대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유골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침입자들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봉 / 팡Fang 족 / 20세기 초
나무, 금속 / 높이 19.3cm

의례용 도끼

카수위Kasuyu로 알려진 의례용 도끼이다. 바퀴살처럼 생긴 도끼의 몸체는 철로 만들었으며, 나무 손잡이에는 구리 막이 덮여있다. 송기족은 강한 철이 남성적, 부드러운 구리가 여성적인 것으로 여겼다. 하나의 무기에 철과 구리가 결합하는 것은 보호하는 힘과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카수위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 / 송기Songye 족
20세기 초 / 나무, 철, 구리 / 높이 35.8cm



수호자상

음불루 은굴루Mbulu Ngulu라 불리는 코타족의 유골함 수호자상은 나무 위에 구리나 황동으로 된 판을 덮어 장식한 것이다. 이 조각상은 사람의 얼굴과 몸을 추상화한 것으로 타원형의 얼굴 아래의 마름모꼴은 팔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조각상은 19세기 말 유럽에 알려졌던 아프리카 예술품들 중의 하나로 코타족의 인간 형상에 대한 양식화된 묘사는 서양 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가봉 / 코타Kota 족
20세기 초
나무, 구리합금, 철 / 높이 56.5cm

남성상

테케족은 조상의 힘을 이용하여 성공을 기원하거나 위협으로부터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부티Butti라는 조각상을 만들었다. 조각상의 몸통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조상을 상징하는 백토, 추앙받는 사람의 수염 등을 담은 봉고Bongo라는 꾸러미를 봉안하였다. 이 남성상은 전형적인 테케족 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각진 형태로 조각되어 있으며 얼굴에는 상흔문신이 표현되어 있다.

콩고공화국 / 테케Teke 족
20세기 초
나무 / 높이 34.0cm



선조상

벰베족의 조그마한 선조상은 인간과 신성한 힘의 중개자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각각의 선조상은 물건을 들고 있는 데 이 물건은 부족 내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막대를 들고 있는 이 남성상은 뛰어난 연설가 혹은 조정자였던 조상을 의미한다.

콩고민주공화국 / 벰베Bembe 족
20세기 초
나무, 조개, 진주 / 높이 15.0cm



03 사바나의 여인상

적도 이남 사바나의 문화에서 여성은 통치자, 사제, 존경 받던 어머니, 명성이 높은 조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투족 계열의 많은 부족 집단은 모계 사회이며 모계 조상의 혈통을 따르고 있다.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존재로서 여성은 적도 이남 사바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과 상징적인 연관성을 띤다. 모계 조상은 풍요로운 여성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여준다.

가면

이 가면은 이상적인 푸누족 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면에는 당시 푸누족 여성의 도톰한 입술, 높은 아치 모양의 눈썹, 아몬드 형태의 눈, 상흔문신, 화려하게 장식된 헤어스타일이 잘 표현되어 있다. 가면의 얼굴은 치유, 평화, 죽은 자의 영역과 관련된 흰색 안료로 덮여있다. 이러한 가면은 의례와 장례식 때 사용되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죽마를 타고 공연을 펼쳤다.

가봉 / 푸누Punu 족
19~20세기
나무, 안료 / 높이 33.0cm



걸상

여성이 좌석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의 걸상이다. 루바족의 속담에 따르면 오직 여성의 신체만이 왕 못지않게 영혼을 붙잡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한다. 이 걸상은 여성이 루바족의 왕을 떠받드는 형상으로 여성은 조상과 왕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셈이다. 배꼽 돌레와 등에 보이는 상흔문신은 다산을 강조한다.

콩고민주공화국 / 루바Luba 족
20세기 초
나무 / 높이 30.5cm

